

연극 '가벼운 스님들' 은 네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삶에 대해 생각게 하는 법문 같은 대사들이 연극 속에 가득하다.

사유 던지는 유쾌한 연극 '가벼운 스님들'



연극 '가벼운 스님들' 포스터.

"그럼 워치켜. 종팔이는 니 두 눈 ˇ 인 뭇살겄다고 하고, 넌 죽어도 종팔이하구는 뭇살겄다고 허니, 그냥 니 두 눈을 뽑아서 줘버리면 다 되는 거 아녀. 두 눈 ˇ 다고 중노릇 뭇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는 게 보는 게 아니고, 또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도 아닌디, 그냥 쓸데없는 거 달고 다닐 필요 ˇ 이 줘버리자니께."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의 이만희 극본

2018. 1. 11 ~ 2. 4 서울 대학로 알과핵

2018년 1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서울 대학로 알과핵소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연극 '가벼운 스님들(연출-최용훈)' 의 한 장면이다. 한 남자가 비구니가 된 속연의 아내를 찾아와 함께 사바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고, 비구니가 된 여자는 뒤늦은 남자의 용서를 결코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결론이 나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도반 스님이 그 쉽지 않은 삶을 향해 한마디 던진다. 눈을 뽑아주라고. 삶은 그렇게 다난한 것인가. 삶의 거처를 옮겨보지만 여전히 삶은 쉽지가 않다.

연극 '가벼운 스님들' 은 네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바람 난 남편 때문에 출가했지만 깨달음은 멀고 매표소 소임만 몇 년 째, 하지만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우남 스님. 계율에 충실하며 출가자의 본분을 다하지만 대중과는 그다지 여법하지 못한 권력자 총무 스님. 눈치가 백단이며 우유부단한 면이 있지만 대중과 원만하고 원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원주 스님. 계율을 그다지 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괴각도 소임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인간미를 품고 있는 지월 스님. 이들 네 명 주인공들은 각자의 삶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 이야기들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삶' 이 되고, 그 삶에서 비롯된 한 줄 한 줄의 대사들은 고개를 뉘이고 눈을 감게 한다. 마침표에서 다시 문장의 맨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그 물음표이면서 느낌표인 한 줄 한 줄이 한 편의 연극이 된다.

연운경 등 배우들 삭발 감행

법문 같은 대사로 '삶' 바라보게 해

연극은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를 썼던 이만희 작가의 신작이다. 불교가 배경과 설정을 이루기 때문에 자칫 낯설고 딱딱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작가는 충청도 사투리와 정감 있는 캐릭터로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연출은 2016년 '올해의 연출가상' 을 수상한 최용훈 연출이 맡았다. 연운경, 강애심, 박현숙과 이선주 등 TV드라마, 연극,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배우들의 연기도 기대된다. 여배우들이 중심이 되는 작품을 만나보기 힘든 최근 연극계여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연극과 영화를 오가며 활약 중인 최광일이 함께 하며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인공 네 명 중 두 명은 아직 연습 중임에도 삭발을 감행했다. 가벼워 보이기도 하지만 진지하고 유쾌한 연극, '가벼운 스님들' 이다.

"요즘 들어 코미디가 부쩍 더 좋다. 안 그래도 고달프고 복잡한 세상인데 뭐 하러 비극을 써서 등짐을 더 얹겠는가. 허나 '가벼운 스님들' 을 쓰려고 하니 '스님들' 과 '가볍다' 는 이미지가 잘 안 맞았다. 스님들을 너무 엄숙하고 중후하게 보았는지 쓰다보면 무겁고 쓰다보면 진지해졌다. 가볍게 쓰는 것도 무겁게 쓰는 것 못 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작가의 변이다. 그래서 연극 '가벼운 스님들' 에서 '가벼운' 이 담고 있는 의미는 쉽지 않다. 객석에 앉을 관객들이 챙겨야 할 몫이다.

봉국사라는 절 마당에서 오래 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연극은 시작된다. 절은 발칵 뒤집히고 네 명의 비구니 스님들은 우왕좌왕한다. 도대체 절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공연문의 1599-4780.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단청에 스민 크리스마스

박일선 '단청 크리스마스~' 전 까루나, 12월15일~1월14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단청작품 전시가 열린다.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 비로자나국제선원 갤러리 깔루나에서 열리는 박일선 초대전 '단청 크리스마스-천상으로의 여행' 이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색깔은 초록색과 빨간색이다. 이 두 가지 색깔은 단청의 다섯 가지 색깔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이러한 색채의 공통점을 살려 '단청산수' 라는 장르를 현대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박일선 작가의 단청작품들로서, 불교와 크리스마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시도했다.



천상으로의 여행 20×20㎝/나무, 단청안료, 먹, 호분

모두가 즐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최근 불교계는 다양한 행사와 메시지를 통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다. '단청 크리스마스-천상으로의 여행' 전은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상징되는 크리스마스의 색채와 우리 전통의 색채인 단청(丹靑)의 색채를 한 그릇에 담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작품은 작가가 어머니의 투병생활을 지켜보며 편안한 '천상으로의 여행' 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한 것들이다.

비로자나국제선원 까루나 갤러리는 사무량심을 주제로 한 전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박일선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 도안과를 졸업했고, 양선희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에게 사사했다. 2014년 제12회 겸재진경미술대전 대상, 제2회 KOTRA 한류미술공모전 동상 등을 수상했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성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기도 · 수행 · 교육도량 天佛寺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① 대웅전
② 1층 : 요사채
2층 : 설법전
③ 심검당 (종무소)
④ 성관음전 (OKIYOME ROOM)
⑤ 일주문
공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학 및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등록대학
한국불교교육대학 대학원 천불사
COLLEGE AND GRADUATE SCHOOL OF KOREAN BUDDHIST EDUCATION CHEON BOOL SA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8-16 흑성산
TEL : (041) 557-3223 FAX: (041)556-1388
조실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문학박사 인환 대종사 주지겸학장 : 철학박사 석 인 경 (太山-印鏡)합장